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신명기 4:1-2.6-8 | 제2독서 | 야고보서 1:17-18.21-22.27 | 복음 | 마르코 7:1-8,14-15.21-23

◎ 말씀 <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

이번 주일 주님 말씀은 율법의 근본정신에 대하여 들려주십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었고, 계명에 무엇을 보태거나 빼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이 주신 계명을 버리고 자신들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느님이 주신 계명에 셀 수 없는 부칙과 금령을 만들어 계명의 정신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제1독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지키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고, 제2독서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권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잘못 된 조상의 전통과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바리사이들이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 뿐 아니라 잔이나 단지나 닢그릇을 씻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비난하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찬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조상들의 전통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달리 해석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마르코 7,8),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란 없습니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힙니다.” (마르코7,14-15) 하시며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의 교묘한 질문에 통쾌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르코7,15,21)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정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마음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마르코 7,23) 거룩함의 기준은 몸의 정화가 아니라 마음의 정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의 근본정신을 언제나 바라봐야 합니다.

| 일 자 | 전 레 력 | 미사시간 | 우리들 정성(지난주) | |
|---------|-----------------|-----------------|---------------|----------------------------|
| 9월4일(화) | 연중 제22주간 화요일 | 오후7시30분 | 교 무 금 주일헌금 | \$ 2,040.00 \$ 1,191.00 |
| 9월5일(수) | 연중 제22주간 수요일 | 오전7시30분 | 성소후원 사회복지 | \$ 95.00 \$ 85.00 |
| 9월6일(목) | 연중 제22주간 목요일 | 오후7시30분 | 성 물 방 원캠페인 | \$ 12.00 \$ 240.00 |
| 9월7일(금) | 연중 제22주간 금요일 | 구역미사(5구역) | 2차헌금 주일학교 | \$ 995.00 \$ 1,662.58 |
| 9월8일(토) |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 | 오후7시30분 | 사제관건축 합 계 | \$ 200.00 \$ 6,520.58 |
| 9월9일(일) | 연중 제23주일 | 오전 9시 오전 11시 | 미사참례자 | 아동: 13명 성인: 191명 |

교무금봉헌자 | 현창균(10-11월)민명규(8-9월)지동순(7-8월)정두용(5-8월)이서향(1-5월)한승운(4월)고정하(7월)송민자. 신영후. 이경희. 임상일(8월)윤영자. 윤재경. 정용우(9월)

◎신앙생활(본당의 쇠신; 본당은 친교의 집. 기도하는 집. 동네의 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위에 세우신 교회

교회(敎會)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계약을 맺은 하느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교회는 “세상이 생길 때부터 이미 상징으로 암시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구약을 통하여 놀랍게 준비되었고, 마지막 시대에 창립되어,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드러났으며, 세말에 영광스러이 완성될” 존재입니다. (「교회 헌장」 2항)

교회를 희랍어로는 ecclesia(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러 모은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니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편,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성당(聖堂)이라고 부릅니다. 성당은 신자들이 미사나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자,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해 지정된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미사경본 총지침 288항에 따르면 성당은 ‘거룩한 행위를 거행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알맞은’ 거룩한 건물로, ‘품위 있고 아름다워야 하며 천상 현실에 대한 표지와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으로 이해합니다. 성당은 이러한 여정 중에 영적인 음료와 양식을 취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름을 통해 활기를 회복하는 쉼터인 샘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찬미의 마당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당에 와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쉬셨나요? 잠시 가만히 앉아 하느님을 생각해 보세요. 색색의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처럼 그렇게 하느님께서 함께하실 거예요.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 카타리나/백정심. 막달레나
전기례. 베레나/김나미. 로사/김옥륜. 세실리아
추소연. 세실리아/염안드레아/김숙자. 수산나
서향자. 글라라/김초지. 마리아/황순이. 마리아
최이주. 베아따/이규청. 제노비아/염모니카
신용경. 그레고리오/배미성. 오틀리아
박모란. 글라라/김광진. 요한/원헤리나. 헬레나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율리아. 916-990-6531/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 구분 | 지향 | 봉헌자 | 구분 | 지향 | 봉헌자 |
|----|--------------|----------|----|-------------------|----------|
| 연 | 한오임. 소피아의 영혼 | 김미숙. 모니카 | 생 | 이규청. 제노비아의 영육간 건강 | 이나숙. 데레사 |
| 연 | 정정갑, 서재소의 영혼 | 정. 프란치스코 | 생 | 정인영. 채즈, 수산나의 가정 | 정. 프란치스코 |

◎내탓이오◎

간
장
중
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가슴 치는 것은
오늘 내가 정화되고 맑게 씻겨지는 것,
세상의 가능자보다 겸손해지고 싶은 신음,
그래서 당신 근처에서 숨쉬고져 하는 희망.

마종기 노렌조 · 시인, 의사/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 | | | |
|---|---|--|---|
|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 <p>신세계여행사 148 Grand Ave.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
|---|---|--|---|

| | | | |
|--|---|--|--|
|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 | | | |
|---|--|--|--|
|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 | | | |
|--|---|--|--|
|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 <p>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
|--|---|--|--|

| | | | |
|--|--|--|--|
| | | | |
|--|--|--|--|

